

# 전남 농업인 4명 정부 지정 '농업마이스터' 선정

### 무안 박건준·화순 유희상·영암 이진성·고흥 오재운씨 올해 6회 시험에 248명 응시...전국 31명만 이름 올러

전남도농업기술원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에 전남 농업인 4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업마이스터는 재배 품목의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 능력, 소양을 갖추고 농업경영·기술교육·상담(컨설팅)을 할 수 있는 농업 분야 최고의 전문가다.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2년마다 1차 필기시험, 2차 역량평가, 3차 현장심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통해 지정하고 있다. 올해 여섯번째 지정 시험에는 식량작물, 원예,

축산, 특용작물, 친환경 등 5개 분야 30개 품목에 총 248명이 응시해 전국에서 31명이 지정됐다. 전남에선 무안군 박건준(조경수)씨, 화순군 유희상(한우)씨, 영암군 이진성(무화과)씨, 고흥군 오재운(시설채소)씨가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박건준씨는 조경수 재배·생산·유통 관리시스템 구축 등 융복합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비 다양한 남부수종을 재배하면서 조경수 산업화에 기여하고 있다. 유희상씨는 한우의 생시체중(태어날 때 몸무게), 이유제중(젖을 땀 시기의 몸무게), 출하체



박건준 유희상 이진성 오재운  
중(가축을 출하할 수 있는 몸무게) 등을 수기·전산으로 기록하고 사료업체와 협업을 통해 임신우 진단을 통한 소의 건강한 체력, 맞춤형 사료 관리 등 맞춤형 개체카드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고 있다. 이진성씨는 태양열과 축열 물주머니를 이용해 비닐하우스에서 무화과를 재배한다. 겨울철에 무화과를 생산해 고소득 창출이 가능하고 두

바이 등 수출시장도 개척했다. 오재운씨는 시설 오이를 재배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노하우와 재배기술 습득을 통해 고품질 오이 생산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등 기술 능력을 인정받았다. 김행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농업마이스터는 3단계 지정 시험을 통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되기 때문에 올해 새로 탄생한 전남 농업인 4명이 농업계의 고급 인재로 공식 인정받았다"며 "전남지역 농업마이스터가 향후 전남 농업 발전을 선도할 리더로서 많은 농업인의 멘토와 전문농업인 양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광주문학상에 윤삼현·박형동·강경화 작가

### 오늘 오후 3시 광주문학관서 시상식...1천만원씩 창작 지원

광주시는 18일 "2024 광주문화예술상 문학분야 수상자로 윤삼현 작가, 박형동 시인, 강경화 시조시인 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9일 오후 3시 광주문학관에서 연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일 광주문화예술상 문학분야 심사위원회를 열어 박용철·김현승·정소과 문학상 수상자로 세 작가를 각각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문화예술창작지원금 1천만원

과 광주시장상 상패가 수여된다. 광주문학상은 광주 출신 시인 박용철·김현승·정소과 선생의 문학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문학 저변 확대를 위해 제정됐다. 시·소설 등 문학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문인에게 수여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광주시가 시상하고 있다. 박용철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윤삼현 작가는 동아일보 신춘문예 등 분야로 등단해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광주예술재원 지도교



윤삼현 박형동 강경화  
수, 광주교육대 대학원 및 순천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윤 작가는 무등일보·전남일보 등 언론사 신춘문예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동시·동화·

수필·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활동을 통해 한국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김현승문학상 수상자인 박형동 시인은 문학춘추 신인상을 받아 시인으로 등단한 후 30여년 동안 '아내의 뒷모습', '바보의 노래' 등 창작활동을 했다. 광주경신여자고등학교 교사로 명예퇴직한 박 시인은 전남문인협회장, 한국문인협회 이사를 역임했고 전남문학상, 전남도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정소과문학상 수상자인 강경화 시조시인은 작품 '부화'로 시조시학 신인상을 받아 문단에 등단해 개인시집 '사람이 사람을 견디게 한다', '메타세쿼이아 길에서'를 발간했다. 금호문화 우수상, 광주전남무등시조문학 우수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변은진기자

# 송창영 광주대 교수 '소방행정 활성화' 소방청장 표창



광주대학교는 18일 "송창영 일반대학원 방재안전학과 교수가 소방 빅데이터 분야의 발전과 데이터 기반 행정문화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소방청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송창영 교수가 재난안전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현장 중심의 혁신적 접근을 통해 소방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송 교수는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소방 안전 정책 수립 및 재난 대응력 강화 등 데이터 기반의 소방 행정문화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화재 예방 정책 개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안전 인프라 구축에 일조했다. 송창영 교수는 "재난안전 분야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재난안전 분야에 더 많은 혁신적 정책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다이지자

송창영 교수는 "재난안전 분야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재난안전 분야에 더 많은 혁신적 정책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다이지자



# 市교육청, '광주교육상' 3명 시상

광주시교육청은 18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제38회 광주교육상 시상식"을 개최해 김철호 전 광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근 전 교육국장, 조미경 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등 3명에 대해 상패와 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상'은 지난 1987년 첫 시상 이후 올해로 38회째를 맞았으며, 매년 광주교육 가족 중 투철한 사명감으로 현장 교육 개선에 헌신·봉사하거나 청렴한 광주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해 표창하고 있다. 김철호 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코로나19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관내 학교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한 원격수업 지원 및 학생 심리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 기관 '지세움' 설립·운영 등 교육 일상 회복을 다각적으로 지원했다. 김종근 전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미래 인재 양성 학교 민주주의 실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교육국장 재직 시절 교권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대책 수립 및 빛고을문학 교과교과 광주교육 발전에 기여했다. 조미경 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은 다양한 선양활동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정신의 전국화 계기를 마련하고 사학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계도했다. /김다이지자



# 전남개발공사, 道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상'

전남개발공사는 18일 "약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며 군(軍)과 협력한 성공사례로 '2024 전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약수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남개발공사가 전국 지방공기업 최초로 추진한 해상풍력 시범 사업으로 2019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발전기 제작과 설치를 본격 준비했다. 하지만 2022년 8월 발전기 설치 전 국방부는 해상에 설치될 풍력발전기로 인해 군 작전 운영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해결책 모색을 위해 전문 교수진과 관련 학술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기술 분석을 진행했으며 분석 결과에 대해 군 핵심 부서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기술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2024년 7월 국방부 허가 원료를 이끌어냈다. 장중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단순한 인허가 해결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 전남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 문화유산 정비 등 봉사

전남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는 "최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나홀로 문화유산을 정비하고, 지역사회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나홀로 문화유산이란 외파로 떨어져 있고, 관리사각 지대에 있는 미지정 문화유산을 가리킨다. 돌봄센터는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의 '두곡고인돌군',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의 '효자비'와 '효자각', 무안군 몽탄면 사창리의 '금성나씨 정려(旌閭)'를 대상으로 환경정비를 진행했다. 돌봄센터는 나홀로 문화유산 정비 외에도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병행했다. 영암군 학산면의 한 독거노인 가구에서는 무너진 돌담을

쌓고, 마당의 쓰레기와 나뭇가지를 정리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이 가구는 돌봄센터가 관리 중인 현종식가옥(시도민속문화유산) 부근에 위치해 이번 작업이 문화유산 주변 환경 개선에도 기여했다. 또한 목포천주교구교구청(근대문화유산) 인근의 한 독거노인 가구의 낡은 데크(Deck) 수리로 통행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대목수 자격증을 가진 돌봄센터 직원들은 전문성을 발휘해 안전하고 튼튼한 출입로를 마련했다. 전남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맡은 고정 업무 이외에도, 틈틈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나홀로 문화유산 돌봄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 전남도교육청 '대한민국 ESG 대상' 수상

전남도교육청은 18일 "전남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주관 '제3회 대한민국 ESG 대상 시상식'에서 ESG 확산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인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전남교육청을 비롯해 ESG 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한 17개 기관이 상을 받았다.



찬희 ▲ESG 교육발전위원회 운영 ▲유관기관 ESG 네트워크 운영 ▲ESG 가치 확산 지원 등 ESG 경영을 선도했다.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은 "전남교육 대전환 실현을 위해 도입한 지속가능 전남교육 ESG의 가치가 전국적으로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내년에는 ESG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 도교육청의 ESG 경영을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지자



# 한국산학협동연구원, 문승일 교수 초청 포럼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KIURI, 이사장 김보근·원장 양승하)은 18일 오전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A홀에서 회원 및 광주·전남 지역 학계 기관 단체 대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주테크노파크,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과 공

동 주관으로 제200회 산학협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는 '분산에너지의 시대, 도전과 기회'란 주제로 강연해 호응을 받았다. /안태호기자